

“혜초 스님 열반지는 오대산 보리지암”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20년 추적... 17일 KBS 역사스페셜서 방송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慧超·704-787)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명 교류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해동반도가 배출한 첫 번째 세계인’이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정작 혜초 스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3권이 있었으나 앞뒤가 잘려진 채 발견돼 자료가 완결하지 않다. 그래서 혜초 스님의 생애에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스님의 생애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은 더욱 불분명하다.

20여 년간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쫓아 10여 개국을 누빈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최근 수차례 현지답사를 통해 혜초 스님의 열반지 발견에 근접했다. 특히 김 소장의 연구·답사 행적은 4월 17일 오후 8시 ‘KBS역사스페셜’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인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게 됐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은 780년 4월 1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해 불전 번역에 매진했다. 도착 당시 세수 80을 바라보던 혜초 스님이 다른 사원으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혜초 스님은 건원보리사에서 열반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9세기의 오대산의 정황이 상세히 그려진 <오대산도>와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를 통해 열반지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 혜초 스님의 사형 함광 스님은 대중황제의 칙명으로 금각사(30) 불사를 위해 청량사 주지(9)로 부임했다. 함광 스님은 혜초 스님에게 청량사 바로 앞 보리지암(6)에서 머물게 했다.

를 찾아왔다. 김 소장은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볼 때,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흰 사자를 타고 친히 마중 나온 문수보살의 손을 잡고 열반에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혜초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건원보리사는 <오대산도>(13m×3.4m)에 그려진 산세 85개 사원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답사 전까지 김규현 소장은 “그 동안 관계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원보리사를 찾지 못했다. 이 사찰은 금각사의 별칭이거나 소속 사사의 하나일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 왔다.

이후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의 열반지를 밝히기 위해 최근엔 세 차례 중국 현지를 답사했다.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를 분석해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가 청량사 인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던 김 소장은 답사와 <대정신수대장경> 등 문헌을 통해 혜초 스님의 말년 행적을 추적했다.

767년, 불공상장의 제자이자 혜초의 말 사형(師兄)인 밀교승 함광 스님은 오대산 선찰로 유명한 청량사에 주지로 부임했다. 당 대중황제는 부왕인 건원 숙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함광 스님에게 청량사를 가지로 삼고 금각사를 짓도록 명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도 자연스레 함광 스님을 따라갔고 함광 스님은 혜초 스님에게 청량사 바로 앞 보리지암에서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혜초 스님이 마지막 역경을 하던 장소도 보리지암이기 때문에 이곳이 열반지로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에서 열반지를 찾아냈다.

도에서 열반지를 찾아냈다.

김 소장은 “최근 답사를 통해 건원보리사의 확실한 위치에 접근했다. 건원보리사터를 찾으면 그곳에 ‘해동사본보리혜초행적비’를 세우는 등 본격적인 신앙사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 역사스페셜’에서는 김 소장의 그간 연구·답사과정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8세기 인도를 순례하는 구도자들을 위한 안내서(가제)’로 김 소장의 연구논문과 <왕오천축국전>을 토대로 8세기 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중국(당), 인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종교 문명 충돌의 현장을 관통하는 혜초 루트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이냐는 기자 byonyung@buddhanews.com

혜초(慧超·704-787) 스님
우리나라 최초로 동서문명교류의 루트인 해양·육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인도를 지나 아랍권까지 갔던 세계적인 여행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을 남긴 저자다. 스님의 저서인 <왕오천축국전>은 <대당서역기> <불국기> <남해기귀전>과 함께 ‘4대 여행기’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헌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2009년 5월 평택항 인근에 혜초 스님의 시와 인도 여행기, <왕오천축국전> 집필 과정을 새긴 ‘혜초 기념비’를 세웠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수행나침반’

최기표 교수, ‘차제선문’ 최초 완역

‘사찰음식’ ‘선(禪)체험’ ‘절하기’ ‘템플스테이’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웰빙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참선수행은 두뇌활동을 촉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 정신건강에 효과적이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수행을 하다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은 수행의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수행을 하는 불자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저서이다.

<차제선문>의 원 제목은 <석선바라밀차제법론(禪波羅密次第法門)>으로 ‘선바라밀의 차례를 풀이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차제선문>은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 개창자인 천대 대사(天台大師) 지의(智顛·538-597)가 설하고 그의 제자 관정이 정리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행해진 온갖 선정의 종류와 수행 차례, 수행 방법 그리고 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망라한 저술이다.

천대 대사의 수행 이론이 담긴 문헌으로는 <마하지관(摩訶止觀) 10권> <차제선문 10권> <소지관(小止觀) 1권> <육묘법문(六妙法門) 1권> 등 네 가지 전적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 <차제선문>은 수행의 실질적 지침서로 삼기에 가장 적당한 저서이다.

이 법문을 완역한 역주자 금강대 최기표 교수는 “단순히 고전(古典)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불교

수행에도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차제선문>이 선정 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현대어 번역본은 없었다.

일본과 대만에서 번역을 진행하던 최기표 교수도 완역하지는 못했고 한국에서 최초로 완역했다.

제1-5장은 선정과 관련한 기초 이론을 소개했다. 제1장에서는 ‘보리심을 발해 사후서원을 세우는데,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선을 수행한다’는 선바라밀 수행 이유를 설명했다. 제2장은 ‘선바라밀’을 풀이했다. 제3장에서는 선정에 들어가는 문을 밝히는데 크게 심문(心門)과 색문(色門)의 두 문으로 나누고, 색문은 다시 부정관(不淨觀)과 아나파나(阿那波那)로 구분된다. 이는 각각 출세간상상선(出世間上上善), 출세간선(出世間善), 세간선(世間善)에 대응한다. 제4장은 선바라밀을 수행하는 차례를 밝히고 있다. 제5장에서는 선정법과 수행자의 마음자세가 유루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4구로 나눴다.

제6장과 제7장은 실제 실천하는 내용으로 법편과 수증(修證)을 설명하고 있다.

이냐는 기자

보물 삼층석탑에 사리함 대신 일본신문

범어사 석탑 보수 과정에서 드러나... 일제강점기 도굴 추정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의 사리함 대신 일본 신문이 발견돼 사리구 일체가 일본 강점기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어는 “3월 29일 석탑 보수 과정에서 1층 탑신 중앙 사리공을 개봉한 결과 전통 방식의 사리함 대신 일체가 마른 것으로 보이는 빈 유리함이 발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발견된 유리함은 일제강점기 발

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신문에 싸여 있었다. 유리함 안에는 기록을 적은 종이 있었으나 부패가 심해 내용은 식별할 수 없었다.

범어사 삼층석탑은 불교가 흥성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범어사 측은 석탑 안에 불경, 불상 등 다수의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석탑 해체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문화재 전문가들은 1930년대 일제가 석탑 기반부를 증축하는 과

정에서 1층 탑신에 있던 사리함 등 유물을 빼돌리고 유리함을 대신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최춘욱 문화재감정위원은 자문의견서에서 “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리병 속에는 산화된 종이 묻히 및 산화물과 깨어진 유리 조각만 남아있었을 뿐 사리·사리장엄구·공양구 등 유물은 전혀 없었다”면서 “산화된 종이 묻히가 한지 아닌 양지이고, 조각 일부에서 활자본 인쇄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범어사 삼층석탑 보수과정에서 드러난 사리공 일구 모습. 사리함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일본신문에 싸인 텅 빈 유리함이 발견됐다.

때 일제 강점기 때의 인쇄물을 넣어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삼층석탑은 대부분 2개 층의 석탑 기반부를 가진 통일신라시대 석탑들과 달리 일제가 석탑을 해체·보수하면서 최하층 기

단부가 한층 더 늘어난 상태였다. 이 때 범어사와 문화재청은 일제가 설치한 석탑 기반부를 제거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석탑을 해체·복원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냐는 기자

진각논문대상 5월 14일까지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정)은 5월 14일까지 ‘제12회 진각논문대상’ 논문을 공모·접수한다.

논문은 ‘제율의 성립과 변천 문제’의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진각종 교화 2편·불교일반 3편·밀교일반 3편 등으로 나누어 공모할 수 있다. 당선된 논문들 중 최우수 1편에 500만원, 선정 7편에 편당 25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선자들은 이후 논문 작성에 들어가 11월 12일 발표회를 통해 논문을 평가받게 되며, 당선자들은 화당학보에 게재된다.

신청자의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논문계획서를 바탕으로 종단 내·외부의 저명한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각논문대상’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 연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에서 매년 공모하고 있다. (02)913-0133

이냐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이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소발효액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소리공양 증폭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 법당전용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고품질 탁상 마이크

◆ 가격 ◆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가격 : 65,000원 (탁상미 포함)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가격 : 250,000원 (탁상미 포함)

◆ 가격 : 135,000원 (탁상미 포함)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차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